

❧ 청정삶터 물의도시 충주 ❧
2019 녹색생활시범학교 보고서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생활 시범학교 운영 계획

① 행사명	○ 2019녹색생활 시범학교
② 일 시	○ 2019 4월 ~ 11월
③ 장 소	○ 각 초등학교 및 유기성폐자원화바이오, 클린에너지파크, 단월정수장
④ 주 최	○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⑤참여학교	○ 참가대상 : 교현초, 달천초, 성남초, 예성초, 용원초, 칠금초, 탄금초. 7개교 (6학년) 25학급 600명
⑥주요내용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론 강의와 자원화시설 현장 체험 학습 (유기성폐자원화바이오시설, 클린에너지파크, 단월정수장, 오폐수처리장 등)
⑦ 목 적	○ 기후변화의 심각성 전파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기반 조성 ○ 그린스타트 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확산 ○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기후변화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거점으로서 역할 수행
⑧소요금액	○
⑨프로그램	<녹색생활 시범학교 운영> 1. 운영기간 : 2019년 4월~2019년 11월(이론 50시간, 현장학습 25회) 2. 대 상 : 교현초, 달천초, 성남초, 예성초, 용원초, 칠금초, 탄금초. 7개교 (6학년) 25학급 600명 3. 이론 수업 내용 1) 1차시 = 기후변화의 원인과 피해를 안다. 2) 2차시 = 신재생에너지와 자원재활용에 대해 안다. <현장 체험 학습> 1. 운영주관 : 자원순환과(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 이동방법 : 충주시청 차량지원팀 지원(버스 이용) 3. 견학 및 체험 장소 ⇒ 유기성폐자원화바이오시설 견학(30분 소요) ⇒ 클린에너지파크 견학(30분 소요) ⇒ 단월정수장 견학 (30분 소요) ⇒ 오폐수처리장(상기 시설의 견학에 어려움이 생길 때 견학)

카테고리	환경수자원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제목	충주시, 저탄소 녹색생활 확산 위한 협약
작성일	2019-04-04 08:25:48

- 초록아파트 만들기 및 녹색생활시범학교 운영 -
(환경수자원과 환경정책팀장 어갑용, 850-3610)

충주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발생 감축과 녹색생활 실천 확산에 나선다.

충주시와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협의회장 이규홍)는 3일 충주시청 기업의 전당에서 지역 내 11개 아파트, 7개 초등학교와 녹색생활 실천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11개 참여 아파트에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가 각 가정을 방문해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요금 고지서를 분석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해 준다.

시는 에너지 절약방법을 안내하는 ‘초록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용

7개 참여 초등학교에서는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녹색생활 실천요령을 안내하는 ‘녹색생활시범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도 함께 실시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과 자원의 소중함을 알려줄 계획이다.

이상정 환경수자원과장은 “이날 협약이 환경의 소중함과 녹색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해 저탄소 녹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0년에 설립된 민·관 협력기구로 기후 변화의 중요성과 대응 필요성을 교육하는 등 저탄소 녹색생활문화 전파에 이바지하고 있다.